



# ‘아일랜드의 눈물’ 감자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만큼 먹을거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작게는 한 개인과 가정의 행복에서 크게는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 부자 나라에서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도 진수성찬으로 호사를 누리는 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먹을거리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는 애깃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먹을거리를 둘러싼 사건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며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바로 감자와 아일랜드의 얘기다. 그리고 그 파노라마에는 알갛게도 명암이 함께 어려 있다. 감자의 덕을 톡톡히 보기도 했지만 감자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도 못지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 상처의 골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아픔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라.

감자는 척박하고 황량한 아일랜드에 아주 제격인 작물이다. 16세기 후기에 아일랜드에 들어온 이후 감자는 이 나라 먹을거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실한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았다. 전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감자에 의존해 식탁을 꾸렸더니 아일랜드인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의 식량이었다. 가난한 섬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심각한 식량난이 빚어지지 않은 것도 감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은 1845년까지였고 최악의 어두움이 그 뒤를 이었다. 그 해 초여름 감자마름병이 크게 번진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 전체 농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감자의 여름 수확량이 30%나 감소했다. 이듬해에는 수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감자마름병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1847년에는 잠시 호전되기도 했지만 불길처럼 번진 기아와 굶주림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웠다.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근근이 연명하며 야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개와 고양이까지 잡아먹었다. 기근은 그 후에도 몇 년 더 지속돼 온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아일랜드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의 정치적 행보가 아일랜드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긴 것도 이즈음이다.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이외에도 다른 곡물과 육류, 유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런 고급 식품들을 살 돈이 없었으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기도 했지만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수출이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영국으로 반출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폭동과 항거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영국은 군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모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영국인 지주들은 뱃삿이라도 손에 쥐여 주었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쫓겨났다. 장삿속으



로 급조된 이민선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바다를 건너 신대륙으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어떤 때에는 배에 탄 476명 중 348명이 항해 도중 죽기도 했다. 이민선에 ‘관선(棺船; coffin ship)’이란 별명이 붙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참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감자 마름병이 유행한 1846~50년까지의 대기근 기간에 아일랜드인 100여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또 다른 100여만 명은 눈물을 흘리며 모국을 등졌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인구는 8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른바 ‘아일랜드 엑소더스(대탈출)’는 20세기 초까지 진행됐고 인구는 급기야 400만 명까지 쪼그라들었다.

한 나라의 인구가 감자로 인해 반 토막 난 서구 역사의 가슴 시린 대목이다. 지구 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재앙이 먹을거리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 정도면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인들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속 응어리가 얼마나 깊을지는 능히 짐작된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신·구교 갈등도 그 뿌리를 들춰 보면 대기근 시절 영국과 영국인 지주들이 아일랜드에서 저지른 실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0년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제금융 신청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시위대 10만여 명이 수도 더블린의 도심에 뒤덮었다. 역사의 아픔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일랜드인들에게 구제금융은 단순히 현재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뛰어넘는 함축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아일랜드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짐을 꾸리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은 역사가 안고 가야 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16세기 후기에 척박하고 황량한 아일랜드에 들어온 이후 감자는 이 나라 먹을거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확실한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 연합DB



### 정갑식

- Fashion Food 21 대표
- 영국 Oxford Brookes대학 박사과정 수료
- 런던에서 Dinning/Eating out trend 분석 컨설턴트로 활동 중